농촌진흥청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2026. 11. 11.(수) 11:00 11. 12.(목) 조간	배포	2026. 11. 11.(수) 06:00

성탄절 물들일 국산 포인세티아, 생산자·소비자 함께 고른다

- 11월 12일 고양 재배 농가, 13일 서울식물원서 국내 육성 포인세티아 평가
- 20여 품종·계통 선보여… 키우기 쉽고 소비자 반응 좋은 우수 품종 선발
- 포인세티아 품종 점유율 2025년 53.4%, 시장 경쟁력 높여갈 것

성탄절 대표 화훼인 포인세티아의 국산 품종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1월 12일과 13일, 고양시 재배 농가(12일)와 서울식물원(13일)에서 '2026 국내 육성 품종·계통 평가회'를 연다.


<국산 포인세티아 전시>

이번 평가회는 재배하기 쉽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포인세티아를 골라 농가에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평가 대상은 △색이 빨리 들고 모양이 단정해 키우기 좋은 '루비퀵' △밝은 베이지색 꽃잎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았던 '루나' △은은한 복숭아색에 동그란 공 모양(볼타입) 외형이 특징인 '슈가볼' 등 20여 품종과 계통이다.

먼저 12일에는 고양시 재배 농가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화훼 산업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제 재배 환경에서의 적응성과 생산성을 정밀하게 살핀다.

13일에는 서울식물원 지중해관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평가회와 전시회*를 연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색과 모양 등 구매 결정 요인을 직접 확인해 국산 품종의 시장 경쟁력을 검증하는 자리다. 특히, 서울식물원과

협력해 국내 육성 품종만으로 연출한 특별한 전시 공간을 선보임으로써 우리 포인세티아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알릴 계획이다.

* 평가회는 13일 하루이나, 식물원 협업 전시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진행 예정

한편, 농촌진흥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개발·보급해 왔다. 그 결과, 국내 육성 포인세티아의 시장 점유율은 2008년 3%에서 2025년 53.4%까지 성장했다. 최근 우리 포인세티아는 우수한 꽃 모양과 색, 재배 안정성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기초기반과 유은하 과장은 “이번 평가회는 농업인이 재배하기 좋고 소비자도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품종을 찾기 위한 자리”라며, “국내 포인세티아 시장을 탄탄히 다지는 한편, 해외에서도 경쟁력 있는 품종을 키워 우리 화훼 산업의 저변을 넓혀 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내 육성 포인세티아 품종, 계통 평가회 계획(안)

담당 부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기초기반과	책임자	과 장	유은하 (063-238-6800)
		담당자	연구사	정현환 (063-238-68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국내 육성 포인세티아 품종, 계통 평가회 계획(안)**

❑ 행사 개요

○ **목적**: 시장수요 반영 신품종 육성, 기획 전시를 통한 소비 활성화
우수계통 조기 선발, 의견 수렴을 통한 육종방향 설정

○ **일시**: ① 11월 12일(목) 10:00 ~ 15:00, 소희원예
② 11월 13일(금) 09:00 ~ 17:00, 서울식물원

○ **장소**: ① 소희원예 재배온실(고양시 원당동 1221)
* 참석자 대상 품종, 계통별 기호도 조사
② 서울식물원 지중해관(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 포인세티아 전시회('26.11.13.~ '27.1.31. 국내품종) 공동 진행

○ **참석대상**: 농업인, 육묘업체, 경매사, 플로리스트, 소비자 등

○ **행사내용**: 주요 품종[10개]·육성 계통[10개] 기호도 평가, 현장 의견 수렴
우리 품종 활용 기획 전시(서울식물원, 11.13.~'27.1.30.)
※ 호접란(열대관), 장미(가드너의 방)에서 시민과의 만남 행사

						
'불꽃'	'빛들'	'슈가볼'	'루나'	'루비퀵'	D5-142	D5-143

❑ 기대 효과

○ 국내 육성 포인세티아 품종과 계통 우수성 홍보, 보급 확대

○ 화훼산업 관계자, 현장 전문가 활용 우량 계통의 조기 품종화

○ 국산 포인세티아 품종 재배 농업인 의견 수렴, 재배 기술 공유

○ 포인세티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시장 활성화